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103:1~2)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송가 28장(통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 가족 기도문 / 온 가족

인도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 족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 추수의 계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도자 우리 가정이 더욱 주님 안에서 거하길 원합니다.

가 족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인도자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섬기며, 주 안에서 부르익어 가게 하시고,

가 족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주님의 평강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추석 명절에 주신 은혜와 모이
다같이 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나아갈 날들도 주님 의지하며 선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이사야 46장 1-4절 / 다같이

1.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3.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 말씀 / 인도자

한가위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풀리지 않은 걱정이나 내려놓지 못한 짐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오늘이 이 말씀 속에 담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세상은 우리가 업을 무거운 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스스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수레에 싣고, 등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신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나를 지켜주고 높여줄 것만 같았던 돈과 성공, 지위와 건강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무게로 우리를 짓누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업고 가는 한, 참된 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고단함이 계속될 따름입니다.

※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2. 하나님은 우리가 업힐 넓은 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업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업고 품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업힌다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던 책임과 두려움, 불안을 내려놓고 그분의 넓은 등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뛰놀다가 장난감도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겨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등에 기대어 쉴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업혀 쉬어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자에게 넓은 등을 내어주십니다.

3. 하나님께 업혀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가정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업어 주시는 든든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추석,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등에 업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업힌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넓은 등에 업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업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업혀 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가족을 위한 기도 / 대표자

➡ 찬송가 546장(통399)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1,4절 다같이

1.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 주기도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